

보잉 787 드림라이너 초도비행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인 B787 드림라이너(Dreamliner)가 지난 12월 15일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미국 워싱턴 주 에버렛의 페인 필드(Paine Field)에서 실시된 이번 첫 비행에서 B787 드림라이너는 오전 10시 27분에 이륙, 후안 드 푸카 해협(Strait of Juan de Fuca) 동쪽 끝을 지나는 항로를 따라 비행, 333km/h의 속도로 4,572m(15,000ft) 고도까지 운항했다. 그리고 약 3시간 후인 오후 1시 33분에 B787은 시애틀의 보

잉 필드에 착륙함으로써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B787의 역사적인 첫 비행을 담당한 수석 조종사인 마이크 캐리커 기장과 랜디 네빌 부기장은 이날 첫 비행에서 B787의 시스템과 구조를 시험했으며, 시험 정보는 기체에 탑재된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잉 필드의 비행시험팀에 전송됐다.

이번 B787의 첫 비행에 대해 보잉 코리아의 윌리엄 오발린 사장은 "B787 드림라이너의 첫 비행은 항공업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자, 글로벌 파트너십과 혁신의 결과물"이라면서 "B787 드림라이너는 한국의 첫 번째 고객인 대한항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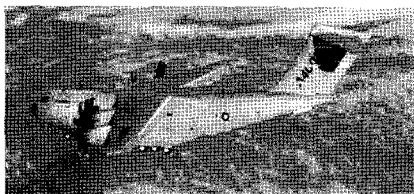
글로벌 운항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 뛰어난 연료 효율성, 탁월한 친환경성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2010년 4/4분기에 첫 인도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현재 보잉은 전 세계 55개 고객사로부터 총 840대를 주문받은 상황. 이 중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5년 10대의 B787을 주문한 바 있으며, 옵션으로 주문한 수량도 10대이다.



에어버스 A400M 수송기 초도비행

에어버스 밀리터리가 개발한 A400M이 지난 12월 11일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스페인 세비아(Seville)에서 실시된 이번 첫 비행에서 A400M은 오전 10시 15분에 이륙, 3시간 47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오후 2시 2분에 착륙했다. 조종을 맡은 수석 시험비행조종사인 에드워드 "ED" 스트롱맨과 시험비행조종사인 이그나시오 "나초" 롬보를 비롯해 엔진 시스템 및 조종특성 등을 담당하는 시험비행 엔지니어들이 첫 비행에 나선 A400M에 탑승했다.



수석 시험비행조종사인 스트롱맨은 먼저 "아주 성공적인 첫 비행"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가운데 이륙 성능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A400M의) 잘 설계된 조종석 덕분에 운용 자체가 즐거웠다"며 "향후 A400M을 조종하는 조종사라면 분명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첫 비행을 시작으로 MSN 1은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0년 말까지 나머지 3대의 시험용 기체(MSN 2~4)도 비행시험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5번째 기체는 2011년

에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다. 현재 시험비행은 3,700시간으로 계획돼 있으며, 오는 2012년 프랑스 공군에 첫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에어버스 밀리터리는 총 184대의 주문량을 확보한 상태로 여기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스페인, 터키, 그리고 영국이 포함된다.

2010년 초, 이클립스500 생산재개 여부 결정

이클립스 에어로스페이스(Eclipse Aerospace)가 2010년 1/4분기에 이클립스500 초경량 제트기 생산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산한 제작사인 이클립스 에비에이션(Eclipse Aviation) 자산을 4천만 달러에 구입한 그는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클립스 에어로스페이스에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생산 재개를 검토할 충분한 돈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클립스500은 2008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생산라인에서 완성됐다. 몇 개의 해외 항공기 제작사가 생산을 넘겨받는데 관심을 보였지만 "앨버커키에서 생산을 재개



하고 나서 해외 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초 이클립스 항공을 인수하고 생산을 해외로 옮기는 데 관심을 보인 해외 제작사들은 이 파산한 회사자산의 최종경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해외 입찰들이 마쳐야 하는 길고 지루한 검토 절차 때문이었다. 그는 "미국 입찰자가 있으면 해외 입찰자가 없을 것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클립스 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이들 회사 중 한 곳을 협력사로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클립스500 운용사인 제트 얼라이언스(Jet-Alliance) 회장인 랜달 사나다는 제작사측이 이클립스 소유주그룹(EOG)에게 6~18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나다 회장은 "이는 누구를 협력사로 정하는지에 달렸다"면서 "그들은 중국과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으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 좋을 것이므로 EOG가 생산재개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4대의 이클립스500을 관리하는 제트얼라이언스는 항공기 추가 획득에 관심이 있는 이클립스 500 운전자 중 하나다. 사나다 회장은 "이클립스 기종 증가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트얼라이언스는 폐업한 에어텍스 운영체인 데이제트(DayJet)가 운용하던 28대의 이클립스 500을 구입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했지만, 이 항공기를 업그레이드 후 재판매하려는 이클립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에 승리했다.